

큐비즘을 통한 한국 실내디자인에서의 모더니즘 도입 연구

- 조성렬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ism in Korean Interior Design by Cubism

- Focused on Cho, Sung-Yul's works -

예 미진

Mi-Jin Ye

남 경 숙

KyungSook Nam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과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과 부교수

Hanyang University, Interior Design

큐비즘을 통한 한국 실내디자인에서의 모더니즘 도입 연구

- 조성렬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ism in Korean interior design by cubism

- Focused on Cho, Sung-Yul's works -

예 미진
Mi-Jin Ye
남 경숙*
KyungSook Nam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과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과 부교수
Hanyang University, Interior Design
*corresponding author

중심어 : 큐비즘, 큐비즘운동,
실내디자인, 조성렬
keyword : cubism, cubism movement,
interior design, Cho Sung-Yul.

목차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 대상 및 방법
 2. 큐비즘과 모더니즘
 - 2.1. 회화에서의 큐비즘
 - 2.2. 큐비즘의 특성
 - 2.3. 큐비즘과 모더니즘
 - 2.4. 큐비즘과 공간
 - 2.5. 건축과 실내디자인에서의 모더니즘적 표현 특성
 3. 작품활동의 배경
 - 3.1. 큐비즘 미학의 도입 및 적용 ; 1960년대
 - 3.2. 큐비즘 미학의 확장파와 모더니즘의 전개 ; 1970년대
 4. 조성렬 작품의 분석 및 평가
 - 4.1. 분석대상작품
 - 4.2. 1960년대 작품 분석 ; 큐비즘 미학의 도입 및 적용
 - 4.3. 1970년대 작품 분석 ; 큐비즘 미학의 확장파와 모더니즘의 전개
 - 4.4. 조성렬과 한국 실내디자인의 모더니즘의 발전
 5.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ABSTRACT

It has been 40 years since "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has become known to Korean society. While this Interior Architecture has changed and progressed, there did not get accomplished many investigations and studies on its achievements and results. This study examined the works and the creative activities of Cho, Sung-Yul in the 1960's~1970's, one of the most recognized designers who has performed abundant projects consistently for cubism movement in interior architecture. Study method is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reference and gathering data through field trip and meeting. Through various creative works as an interior architect, cho, sung-yul could draw expressive characteristics which could be spoken as consistency of modernism by his cubism formation. As a result of examination, simple geometry of his cubism aesthetics in first is developed to architectonic beauty as expression on simplicity and functional. What a brilliant primary color and pastel pattern in space is emphasized and given energy. His experimental mind is the one of sources which made modernism radiate in Korean interior architecture through cubism..

요약

한국사회에 실내디자인(실내건축)이 알려진지 40년이 되었다. 한국에서 실내디자인이 변화되고 진보되는 동안 그것의 업적과 결과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미비하였다. 본 연구는 실내디자인에서 큐비즘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가장 잘 알려진 작가 중의 한 사람인 조성렬의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창조적 작업을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과 작품자료수집, 현장조사,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실내건축의 다양한 창조적 작업을 통하여 조성렬은 큐비즘을 통하여 모더니즘적 표현을 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그의 큐비즘 미학은 초기에는 단순성과 기능성을 표방하였고 점차적으로 반복적인 표현을 강조하였으며 공간의 개방성과 융통성을 추구하여 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였다. 공간은 화려한 원색이나 파스텔톤의 패턴으로 강조되어 활력을 주었다. 조성렬의 실험적인 정신은 큐비즘을 통하여 한국 실내건축에 모더니즘을 가져온 근원으로 볼 수 있다.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60년대에 정부가 조국근대화, 산업화사회의 급진적 경제 개발 정책을 이끌고 있을 때 우리 한국 사회에 실내디자인(실내건축)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기 시작한다. 1970년대는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 유통구조의 대형화, 대형건축물의 건설 등의 정부 시책 아래 실내디자인은 급속히 발전, 확산될 수 있었던 기회를 맞게 되었고 그 영역이 전문화되기 시작하였다. 실내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기 시작하여 40여년이 지난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이 열린 오늘 우리 한국사회에서의 실내환경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날로 다양하게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과 부응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렇듯 실내디자인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업적과 성과에 대해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우리의 실내디자인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전문영역의 재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내디자인사에서 큐비즘운동과 서구적 모더니즘으로 일관된 활동을 해 온 조성렬의 작품 세계 및 창작 활동을 고찰하여 한국 실내디자인에서 모더니즘의 도입과 정착에 기여한 바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실내디자인사 작업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내는 과정과 의미를 되새겨 이후 실내디자인 영역에서의 사회적 실천의 지표 중 하나를 만들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조성렬 창작 활동(1966년~2005년) 40여년 중 1960년대에서 1970년대는 큐비즘과 서구적 모더니즘으로 집약된 시간이 대부분이고 80년대 이후에는 모더니즘이 성숙되고 다양한 디자인 언어로서 확장된다. 따라서 그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작품과 여러 영역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작가적 주장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큐비즘과 모더니즘적 표현특성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 실내디자인계에 모더니즘을 뿌리내리게 한 근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큐비즘과 모더니즘의 관계를 알아보고 1960년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실내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기 시작한 시대적 배경과 조성렬 작품을 연구하였다. 그의 작품 중 문헌에서 나타나는 빈도가 높은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시대순으로 큐비즘과 모더니즘의 특징적 요소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이론적 배경을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과 문헌고찰을 하였고 조성렬 작품의 자료 수집과 연구는 각

종 문헌과 현장 조사(현존하는 작품)를 겸하였고 작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2. 큐비즘과 모더니즘

2.1. 회화에서의 큐비즘

큐브(cube)란 정육면체란 뜻으로 큐비즘(입체파,立體派)은 1907년부터 1914년 사이 파리의 예술계를 무대로 전개되어 20세기 미술의 시각 혁명으로 불릴 만큼 모더니즘의 가장 의미 있는 발전 중 하나로 제 1차 세계 대전 후 조형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초기에는 ‘자연은 구, 원뿔, 원통으로 되어 있다.’는 세잔의 이론과 당시 아프리카 흑인 조각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 그 특질은 무엇보다도 포름(form)의 존중에 있다. 자연을 예술의 근거로 삼았지만 그 형태와 질감 및 색채와 공간을 그대로 모방하지는 않고 대상을 철저히 분해하여 여러 측면을 동시에 묘사함으로써 사실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큐비즘은 대상을 시각적 형태보다는 본질의 내면까지도 이해하려는 시도로 기하학적 형태와 구조로 해체하고 여러 시점에서 관찰하여 하나의 평면에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회화의 기법이었다. 중복되어 이중으로 표현되는 형태는 전면과 측면에서 관찰되어 동시에 표현되기도 하였다. 시간의 개념이 도입되고 각 시점의 여러 면은 돌출과 후퇴, 또는 투명하게 서로 상호관입하고 있으며 단일초점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 입체(立體:Cube)란 최초로 비평가인 R.보셀이 1908년 브라크 작품 <레스타크의 집>에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1907년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을 새로운 표현 양식의 전조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론이다. <아비뇰의 처녀들>은 세잔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색채를 통해 원근감을 표현하였다.

2.2. 큐비즘의 특성

큐비즘은 두 가지 전제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데 첫째, 자연적 형태는 기하학적인 동일체의 방향으로 단순화시키거나 세련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둘째, 회화 속 평면에서도 4차원의 공간과 시간이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하며 대상의 모든 면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큐비즘운동은 브라크, 피카소 등이 중심이 되어 발전하였으며 초기입체주의, 분석적 입체주의와 종합적 입체주의로까지 3단계로 구분되어 발전되어 갔다.

초기의 큐비즘은 세잔의 이론을 심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대상의 자연적 형태를 요약하고 단순화시켰으며, 단일 원근시점이 아닌 복수시점을 이용해 사물의 본질적인 형태를 화면에 표현하였다. 따라서 고전적 사실주의에서의 광선,

명암, 원근, 질감, 채색법을 무시하고 3차원의 깊이, 공간, 입체감들의 전통적인 표현법이 소멸함으로써 대상이 평면으로 환원되어 표현되었다. 분석적 입체주의는 1910년을 고비로 형태는 점차 세밀하게 결정화(結晶化)되고, 사물은 현저하게 해체되어 가는 양상으로 발전한다. 화면의 구성은 피카소의 ‘앙브루아즈 볼라르의 초상’에서와 같이 대개는 형태가 중앙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 외곽으로 갈수록 평면은 분해 되어 크기는 점점 커진다. 구상적 소재와 문자가 함께 표현되기도 하였다. 대상과 주제도 자연이나 풍경 등에서 정물적인 술병, 컵, 과일 등으로 옮겨가게 되고 또 기타, 만돌린, 바이올린 등의 악기가 등장하여 분해된 악기의 형태가 전후좌우로 서로 뒤섞여진다. 초기와 같이 색채의 제한을 통하여 화면 속에서의 평면들 사이의 관계와 구성, 구조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의도되었다. 분석적 입체주의에서는 초기 큐비즘의 조형 논리가 극대화되어 대상이 분석되고, 완전히 기하학적 단위로 해체되고 다시 평면의 화면 위에서 재구성되었다.

종합적 입체파 또는 플라쥬 큐비즘은 분석적 입체파가 화면구성에만 그 중심을 둔 나머지 물체의 진정한 실체성을 상실하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파피에 콜레(papiers collé)와 플라쥬 마티에르(collage matière)의 기법으로 등장한다. 신문지, 벽지, 담뱃갑이나 트럼프 등을 화면에 붙여가는 방법으로 1912년 브라크에 의하여 최초로 응용되었다. 형태의 결합과 종합을 강조함으로써 형태가 크고 장식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분석적, 평면적이었고 동시에 색채의 역할은 한층 강조되었다.

<표 1> 초기 입체파 대표 작품과 특성

작품	작가/작품명	큐비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스타크의 집 브라크 캔버스에 유채, 스위스 	집의 양감, 나무의 원통 형태, 황갈색과 초록색의 색채는 폴 세잔의 풍경화를 연상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비뇰의 처녀들 피카소 캔버스에 유채, 미국 	색채를 통해 원근감을 표현, 따뜻한 적갈색 계통은 진출, 차가운 파란색 계통은 후퇴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카소 앙브루아즈 볼라르의 초상 	분석적 입체주의, 형태가 중앙으로 모여 있고, 외곽으로 갈수록 평면은 분해되어 크기는 점점 커짐, 회색, 검정색의 무채색과 황토색 계통만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라크 바이올린 	분석적 입체주의, 분해된 악기의 형태가 전후좌우로 서로 뒤섞여짐, 회색, 검정색의 무채색과 황토색 계통만이 사용

2.3. 큐비즘과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제 1차 대전 후 1920년대에 일어난 표현주의, 미래주의, 다다이즘, 형식주의 등의 감각적, 추상적, 초현실주의적 경향의 여러 운동을 지칭한다. 미국, 유럽에서는 대개 모던 아트(Modern Art)라 말하며 20세기 초반의 디자인에 있어서 진보된 과학 기술과 그 기술이 불러온 새로운 생활방식에 적합한 디자인 표현기법의 출현으로 여겨지며 가장 중요한 발전으로 보고 있다. 디자인에서는 월터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 1881~1969),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 ; 1886~1969),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 1887~1965) 그리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 1867~1959)가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여겨진다. 모두 건축가였지만 모두 실내건축, 제품 외에서도 20세기 모더니즘을 특징짓는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새로운 방향들을 규정하여 ‘근대운동’의 창시자로 불린다.¹⁾ 큐비즘 미학은 기하학적 형태로의 재구성이라는 표현법을 통해 동시성, 투명성, 다면성, 상호관입 등의 특성을 모더니즘에 전하였다. 건축과 디자인에 있어서도 많은 작가들이 큐비즘의 영향을 받게 되며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잘 표현하였다.

2.4. 큐비즘과 공간

여러 분야의 예술 영역에서 새로운 구상과 에너지를 제공한 큐비즘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시·공연속체로서의 새로운 공간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발전되었으며 이후 많은 건축적 작업에서도 그 특징들을 나타내게 되었다.²⁾ 대표적 예로 Le Corbusier는 입체, 표면, 평면을 다루면서 입방체, 구체, 삼각추, 원통 등의 기본적 형태가 가장 아름답고 이러한 순수 형태 안에 건축의 본질이 있다고 했다.³⁾ 순수기하학의 질서에 따라 형태를 강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여러 주택의 기본적 형태로 입방체의 사용과 입면의 기하학 질서에 의해 잘 표현되었다. 또한 많은 시점들의 공존을 시각화하는 개념으로 내·외벽의 수직, 수평적 통합을 통해 다양한 내부 공간을 연출하고 벽체의 구조적 해방으로 개방된 실내를 불투명한 벽체와 투명한 벽체(유리창)의 중첩을 통해 연출하였다. 장식적 형태로 타락한 종합적 큐비즘을 비판하면서 필요 없는 장식을 배제하고 간결하고 정확한 기하학적 조형미를 강조하는 순수주의(Purism)를 탄생시켰고 벽체의 구조적 해방으로 인한 보이드와 솔리드의 자유로운 구성은 건물 내,외부의 통합과 상호관입도 가능하

1) John Pile 저, 임채진 감수, 홍승기 역, 실내디자인사, 세우, 2005, p.266 재구성
 2) 이연경, S.Giedion의 공간, 시간, 건축에 나타난 근대 건축의 시간과 해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3) 김진숙, 천득염, Cubism과 Corbusier 작품의 관련성 고찰, 대한건축학회 제15권, 제2호, 1995

게 하였다.

2.5. 건축과 실내건축에서의 모더니즘적 표현 특성

(1) 건축에서의 모더니즘적 표현 특성

건축에서의 모더니즘적 표현특성은 근대적 인식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여러 문헌과 자료에서 통용되고 있다.

<표 2> 모던 건축의 특성

특성	설명
1. 기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이나 디자인의 핵심 또는 지배적 요소 장식적 개념에 대치되는 의미 합목적성과도 상통
2.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자체 및 시공비, 관리 유지에 대한 타당 또는 저가의 비용에 대한 개념 산업 및 기술의 발달로 인한 대량 생산품과 규격화된 공산품의 사용 등이 그 좋은 예
3. 신재료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골, 콘크리트, 유리 등 신기술의 산물로 규격화, 시스템화 될 수 있는 재료의 사용 내구력, 경제성과도 관계
4. 내부공간 개방과 구조벽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골, 콘크리트는 구조적 역할의 둔탁한 벽을 해방시킴
5. 현상적 투명과 내·외부 상호 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리의 사용으로 인한 시공간의 체험으로 연결
6. 기하학적 단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큐비즘 회화의 영향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르 꼬르뷔지에, 미스, 그로피우스에 의해 추상적 배열에 의한 조형미로 발전
7. 장식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조, 조적조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장식의 제거
8. 수평, 수직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면에서 특히 강조
9.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에 있어서 예술주의에 대치되는 합목적적 건축주의에서 나온 성격으로 근대 과학의 발달과 고도화 된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생겨남

(2) 실내건축에서의 모더니즘적 표현 특성

실내건축에서의 모더니즘적 표현특성은 건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여러 문헌과 자료에서 통용되고 있다.

<표 3> 모던실내건축의 특성

특성	설명
1. 기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식적 개념에 대치되는 의미 합목적성과도 상통
2. 내부공간의 개방과 구조적 벽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골, 콘크리트는 구조적 역할의 둔탁한 벽을 해방시킴
3. 기하학적 단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큐비즘 회화의 영향
4. 장식의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을 우선하는 개념에서 발전
5. 공간의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공간 체험을 가능하게하고 상호관입도 유도
6. 토탈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환경, 가구 등의 통합 디자인

3. 작품활동의 배경

3.1. 큐비즘 미학의 도입 및 적용 ; 1960년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전환은 초보적인 50년대를 마감하고 60년대에 들어서면서였다. 본격적인 산업화와 국민소득의 증대는 실내건축을 필요로 하는 상업공간, 전시공간 등의 수요를 서서히 증가시키며, 실내건축은

태동기를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된다. 60년대 초 실내디자이너는 관련 분야였던 응용미술이나 건축을 전공한 몇몇의 디자이너에 의해 개념이 정립되던 시기로, 김수근과 같은 뛰어난 감각을 가진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건축설계와 시공기술의 질적 향상과 새로운 형태적 시도가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기까지 실내장식업소가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는데 이는 정부의 시책으로서의 관광산업의 중점적인 진흥, 유흥업소의 기업화, 강남 아파트군의 건설 등에서 기인하였다. 또한 유흥서비스 문화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외래어 상호의 범람도 더불어 일어난 현상이었다. 그러나 가구산업의 대형화와 일반수요자의 실내건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실내건축은 질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⁵⁾

이 시기의 명동 일대 중요 점포의 설계는 상업환경의 신조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1968년 서울의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는 국가적인 규모의 박람회로 본격적인 현대 실내디자인 시대의 개막이었으며 국내 인테리어 디자인계를 대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전시설계와 인테리어 디자인의 기능성과 작품성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었다. 조성렬이 책임자가 되어 디자인한 삼성관은 그의 역작이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작품으로는 애플살롱(1966)이 있다.

3.2. 큐비즘 미학의 확장파와 모더니즘의 전개 ;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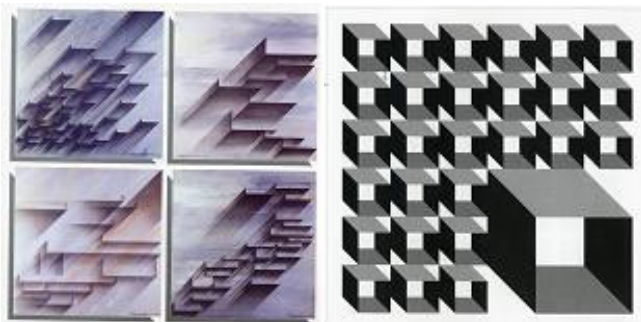
확고한 정착기라고 볼 수 있는 1970년대는 각종 재료의 개발, 사회경제의 급진적 발전으로 실내디자인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해외건설 붐의 시작과 관광산업의 진흥, 유흥업소의 대형화, 기업화, 건설 경기를 부추겼던 오피스빌딩의 건립, 아파트군의 건설양상은 상업공간으로 실내디자인이 편중하였던 그 대상의 전환을 시작하게 되었다. 보다 더 대중과 가까운 생활로의 관심이 확대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디자인의 본래 목적과 가치가 다시 의미를 찾았다. 후반에 들어서면서, 실내디자이너는 그 성과의 내용이나 규모에서 볼 때 더는 건축이 만든 내부공간이 아니라는 사고로 정립하게 되어 그 고유한 영역의 위치를 확고히 해갔다. 서구 근대합리주의 건축 환경 이념의 타성적 답습에 대한 반성적 대응으로는 한국적 합리주의를 통해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전통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게 되었다. 또한 호텔 등의 대형 프로젝트는 선진기술의 도입이라는 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바람직한 협업이나 선의의 경쟁보다는 기본계획 자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정적 사실을 통해 자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프로젝트의 대형화, 다양화는 더욱 추진되었고 특히 주거공간 디자인의 수요가 급증하여 실내건축계는

4) 박홍, 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 기문당, 2001, p.195~197

5) 남경숙, 한국 실내건축의 개척과 성장, 도서출판 미건사, 2002, p.27

더욱 세분화 · 전문화되어갔고 실내마감자재와 가구 등도 함께 발전되었다. 서양에서 유행하던 히피의 열풍 또한 상륙되었고 장발과 청바지와 함께 전반적으로 대중문화의 상업주의와 향락주의의 경향이 강해지던 중 1972년 하반기부터의 유신체제 아래서 문화정책의 엄숙함은 한편으로는 모순이나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성으로 볼 때 필연적 현상이었다.⁶⁾ 이 시대 한국 실내건축의 대체적인 작품은 주로 모더니즘에 근거를 둔 표현특성을 보여주었고, 상업목적에 의한 분위기 연출로는 고전양식이 사용되었으며 한국의 전통적 표현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2년을 기점으로 큐빅이라는 이름의 그의 모든 작업들은 전환점을 맞는다. ‘조성렬 건축전’과 ‘조성렬 작품집’을 출간하여 ‘건축과 실내디자인을 접목’시키는 작업을 정리해냈다. 이 전시회 이후 73년부터 그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하면서 그의 큐빅운동은 국내 인테리어 디자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었고 건축 · 실내디자인의 범위로부터 더 넓게 확장되어 그래픽디자인, 전시공간디자인, 연구와 개발이라는 영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림1> 조성렬의 스케치

<그림2> 조성렬의 큐비즘 구성

‘파인 힐’ 레스토랑은 그의 건축 · 실내작품 시리즈의 출발이었다. 독창적인 이 레스토랑은 서울의 명소로 부각되었다. 엄밀하게 구분 짓자면 그의 상업공간 작품에서는 장식을 배제하는 모더니즘적 표현특성에는 위배되는 요소를 찾을 수가 있다. 작가가 일관성 있는 토탈 디자인 개념으로 디자인하고 시공한 천정이나 계단실의 조명, 벽면의 강렬한 색상의 그래픽 등은 실제 그 공간에서 장식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구체적인 예로 서구의 유사한 이미지 중 하나인 테오 반 데스브르크(Theo Van Deosburg ; 1883~1931)의 카페 로베뜨(Café L’Aubette ; 프랑스, 1926~1928)를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데 스틸의 성향이 가장 두드러진 작품 중 하나로 손꼽고 있지 않은가? 카페 로베뜨에서와 같이 조성렬 작품에서도 평면과 입면에서의 기하학적 도형의 응용은 장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겠다.

6) 박홍, 남경숙, 한국 실내건축의 개혁과 성장, 도서출판 미건사, 2002 재구성



<그림3> 조성렬의 벽면 그래픽 <그림4> 조성렬의 벽면에 기하학 응용

4. 조성렬 작품의 분석 및 평가

4.1. 분석대상작품

본 연구를 위한 조성렬의 분석 대상 작품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작품으로 작품 연보는 다음과 같다.

<표 4> 조성렬 작품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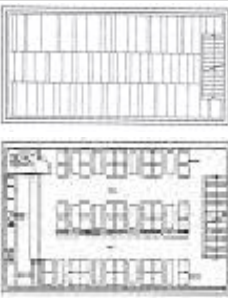

연도	작품명
1960년대	• 애플살롱(1966)
	• 삼성그룹관 한국무역박람회장(1968)
	• 레스토랑 ‘파인 힐’ 본점(1972)
	• 뉴욕제화(1972)
1970년대	• 음악감상실 ‘르씨랑스’(1972)
	• S 주택(1973)
	• 커피스넥 ‘세르보’(1973)
	• 커피숍페리칸(1973)
	• 레스토랑 ‘파인 힐’ 종로점(1974)
	• 새순교회(1975)
	• B 주택(1975년)
	• 커피스넥 웨이브 (1975)
	• 경양식 ‘톨립’(1978)
	• L 주택(1978)

4.2. 1960년대 작품 분석 ; 큐비즘 미학의 도입 및 적용

1966년의 ‘애플 싸롱’(이후 1970년에 신촌에도 동명의 프로젝트가 시공됨)은 로고디자인, 가구디자인, 조명디자인과 함께 토탈디자인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상업공간이었다. 또한 큐비즘에 근거한 기하학적 수직과 수평선은 파사드의 파티션과 평면에서 사용되었고, 내부 입면의 사선 또한 기하학적 조형미를 강조한다. 시각적으로 투과되는 입구의 격자 파티션은 그 공간으로의 진입 이전에 내부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암시하여 일종의 상호관입의 효과를 연출한다. 벽면의 역동적인 사선 모티브는 그 어떤 다른 장식보다 장식적이어서 입면의 변화를 주지만 유사색의 일관된 사용으로 인하여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로 그 외 요소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상업공간에서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위해 공간의 분할과 가구의 배치는 사각형으로만 설계되었다. 특별한 장식 없이 시원하게 개방된 공간은 단순미가 강조되어 긴장방형 실내의 부피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박람회 건축인 삼성그룹관(1968년)은 그의 큐비즘 미학을 통해 모더니즘적 성향을 유감없이 발휘한 선구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거대한 원기둥의 이층 전시관과 상징적 조형물로서의 탑, 그 두 개의 조형적, 기능적 요소로 이루어졌다. 기하학적 조형미에서는 물론이고 전시관의 내부는 전시물

의 효과적 관람을 위한 기능성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1층 전시관은 24본의 기둥으로만 지탱되는 개방공간으로 자유로운 실내를 자랑하고 유리의 사용으로 내·외부 공간의 상호관입도 이루어진다. 이 시기 대표적 작품에 나타나는 초기 모더니즘적 표현특성으로는 단연코 큐비즘 미학의 기하학적 조형언어와 토탈디자인 개념이다. 수직, 수평, 원, 사선과 직삼각형으로 이루어지는 선, 면과 입체로 공간을 계획하여 자유롭고 경쾌한 현대미를 추구하였고 색상은 동일 프로젝트에서는 유사색의 제한된 사용만을 고집하여 큐비즘의 난색과 테 스틸의 원색이 채도의 대비효과를 위해 주로 사용되어 통일감을 주었다.

<표 5> 1960년대 조성렬 작품

작품명	도면 및 이미지	모더니즘적 표현특성
애플 살롱 (1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줄의 크기가 다양한 직사각형의 기하학적 바닥 패턴의 표현 • 긴 장방형의 개방형 평면 • 좌측 화장실, 주방 및 배선대 연이은 뮤직박스의 입면에 일관성 있는 수평, 수직의 사각형패턴 사용 • 기능성에 충실한 가구 디자인 • 효율적 평면구성 • 큐비즘에 근거한 기하학적 구성과 단순하면서도 기능성을 표방한 구성미
삼성그룹관 한국 무역 박람회장 (19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큐비즘에 근거한 기하학적 구도로 원, 수직선과 수평선 응용 • 투명유리를 통한 내·외부 공간 상호관입 • 평면의 개방 • 단순, 간결한 디자인과 색으로 청색과 무채색의 조화 • 기능성을 표방한 구성미 • 전시관 기능의 극대화 • 철골과 유리의 사용

4.3. 1970년대 작품 분석 ;

큐비즘 미학의 확장파와 모더니즘의 전개

이 시기에 조성렬은 연이은 다양한 작품 속에서 실험적인 작가 정신으로 일관성 있게 큐비즘미학을 확장시켜 나가며 본격적으로 모더니즘적 표현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영원히 도전해도 크게 변질되지 않는 주제, 큐비즘의 기하학적 논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형과 패턴을 창조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의 수용과 조화 속에서 보다 풍부한 조형의 세계를 창조해 나갔다. 상업공간에서는 인상적이고 고유한 이미지의 형성을 위해 대비되는 강렬한 색채들을 특별히 설정하였고 실내, 가구, 소품 등 모두를 통일된 토탈디자인 개념으로 전개하였다. 통일된 디자인의 모티브와 컨셉은 물론이고 기능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효율성이 극대화되었고, 시원스럽게 공간은 개방되었으며 환경과의 조화를 지향하는 노력은 작품마다 배어났다. 레스토랑 ‘파인힐’ 본점

(1971;1992년에 개보수)은 건축과 실내건축이 일치를 이루는 또 하나의 수작(秀作)이다. 건축의 외관디자인은 기계미학적 성향을 나타내어 그 마감재가 규격화되어 사용되었고 내부에서는 기하학적 도형을 가구와 조명까지 적용하여 토탈디자인의 통일감을 연출하였다. 1972년의 ‘뉴욕제화’는 당시 명동 거리의 상업공간들이 차츰 발전된 실내건축으로 변화되는 양태를 잘 보여 주었다. 강한 원색, 기하학적 선의 응용과 함께 시선을 끄는 화려한 조명 등이 바로 그러했다. 일관성 있게 입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응용된 사선은 빨려 드는 듯한 느낌으로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조성렬의 주택에서는 더욱 빈번히 그리고 강하게 큐비즘 미학을 찾아 볼 수 있다. 기하학적 도형의 사용과 더불어 유리의 투명성으로 내·외부 공간의 상호관입을 유도하고 공간의 배치 계획에서도 개방적으로 연결된 여러 공간의 중첩된 이미지를 다양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꼬르뷔지에가 빌라 사보아에서 표현했었던 시공간개념과도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정서와 문화적 특성으로는 조성렬의 주택에서는 빌라 사보아에서와 같이 더욱 적극적인 공간의 개방성은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거실이나 식당, 계단실 등과 같이 공용의 공간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찾아 볼 수 있다.

<표 6> 1970년대 조성렬 작품

작품명	도면 및 이미지	모더니즘적 표현특성
레스토랑 ‘파인힐’ 본점 (1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과 면의 기하학적 도형구성으로 그래픽적 파사드 표현 • 외관의 단순미 • 공간의 개방감 • 1층 유리를 통한 내·외부 공간 상호 관입 • 기하학적 도형의 평면, 입면 • 기능성을 강조한 공간의 효율화
뉴욕 제화 (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적 정방형, 수직과 수평, 45도 사선, 기하학적 구도 • 주홍색과 무채색의 강한 대비 • 전면 유리를 통한 내·외부의 상호관입 • 프레임 속에 수직·수평을 축으로 이용 • 현대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벽면 가구와 조명에 사선적 모티브를 사용
음악 감상실 르세 랑스 (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선을 이용한 벽면 단위격자의 반복으로 기하학적 도형 유도 • 효율적 공간 배분 및 기능적 가구 배치 • 공간의 개방성 • 큐비즘의 대표색상인 난색 사용 • 입면의 조명이 벽에서 돌출되는 큐비즘회화의 효과 • 뒷 조명 장식벽을 제외한 벽과 기둥에서 장식의 배제 • 가구의 단순미

S주택 (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적 정방형, 수직과 수평, 45도 사선, 기하학적 구도 • 현대적 주거기능과 감성의 발전 • 개방된 연속공간에서의 기능의 통합과 이미지의 중첩 • 단계별 전개를 통한 내·외부 공간의 상호 관입 • 큐비즘에 근거한 기하학 조형미 • 평면의 개방 • 단순, 간결한 디자인
커피스낵 '세르보' (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각추 형태의 간접조명박스를 사용하여 기하학적 조형미를 강조 • 벽면의 그래픽도 삼각형의 패턴으로 일관성을 나타냄 • 병렬형으로 설치된 삼각조명박스와 입면의 그래픽이 겹쳐져 상호 돌출·후퇴하는 큐비즘 효과 • 큐비즘의 색상인 주홍과 노란색 단색사용 • 직사각형 부스 파티션의 단순미와 기능성
커피숍 페리칸 (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하학적으로 단순하게 반복 처리한 벽면 디자인 • 벽면 그래픽을 화려한 원색과 파스텔톤으로 처리 • 단순한 디자인의 가구 • 공간의 개방
서울 레스토랑 '파인힐' 종로점 (19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의 오브제와 함께 연출된 미니멀한 로고 • 건물 내,외부 로고, 가구, 브래킷의 토탈 디자인 • 기하학적으로 단순하게 반복 처리한 벽면 디자인 • 단순한 디자인의 가구 • 바닥 패턴과 외부 오브제에 사용된 45도 사선
새순 교회 (1975,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통형의 매스가 강한 중력감 • 원통과 겹쳐지는 수직선과의 돌출 효과 • 원, 직사각형의 기하학적 도형의 사용 • 본 건축물과 백색 십자가와의 질감과 색감의 대비 • 십자가의 수직선과 원통의 수평선의 조화 • 단순미가 강조된 장식의 절제 • 직사각형창의 반복적인 리듬감
B주택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주택의 이미지를 단순화하여 현대적 이미지로 변신 • 거실과 식당 공간의 개방성 • 거실과 식당의 유리를 통한 내·외부 공간의 상호관입 • 조명 등 토탈 디자인 개념 • 입면의 수직, 수평을 이용한 기하학적 이미지 • 공간의 기능성을 극대화

커피 스낵 웨이브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각추 형태의 간접조명박스를 사용하여 기하학적 조형미를 강조 • 벽면디자인은 파스텔톤의 팔각 형태의 연속적 반복 • 직사각형 부스 파티션의 단순미와 기능성 • 공간의 개방 • 붉은색 가구를 사용하여 파티션과 대조를 이룸
경양식 툴립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하학적 장방형과 사선의 반복 사용 • 백색 벽과 기하학 형태의 파티션 반복 • 철재의 단순한 디자인의 가구 • 정형화된 가구배치에 의한 공간 활용 극대화
L 주택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면체의 절제된 박스 • 박스 반복에 의한 추상적 이미지 • 입면의 기하학적 도형의 사용 • 주차장과 본체 매스의 돌출과 후퇴 (큐비즘 회화 효과) • 가구의 장식성 배제 • 1층 공간의 개방감

4.4. 조성렬과 한국실내건축의 모더니즘의 발전

조성렬의 작품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실내건축에서의 모더니즘의 발전사항과 그 맥을 함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건축에서의 모더니즘의 도입은 양식에 대한 토론이나 기술적 실험의 과도기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서구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이입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스(Mies, V. R.)적 설계원리와 규범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순수 기하학에 의한 절제된 표현형식을 취하면서 서구의 것에 대한 절대적 수용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주의, 기능주의 경향에서 공간의 기능성 보다는 순수조형으로서의 기하학의 도입을 선진화의 상징적 이미지로 부각하여 한국실내건축계에 도입하게 된다.

조성렬의 경우 1972년 조성렬 건축전과 '조성렬 작품집'을 출간하여 그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하면서 그의 큐비즘운동은 국내 실내건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레스토랑'불새'(1970), '파인힐'(1971)과 음악감상실'르실랑스'(1972), '뉴욕제화점'(1972), '숲속의 빈터'(1973) 등의 전반부 작품에서 그의 큐비즘 미학은 입체적 조형성의 강조 보다는 단위격자의 반복에 의한 강조를 하려하였고, 공간의 개방성과 그에 따른 융통성을 추구한 것으로 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였다. 커피·스낵 '세르보'(1973), 커피숍 '페리칸'(1973) 등의 경우 한 벽면을 아트워크로서 강하게 부각시켰다. 이는 기하학적으로 단조로운 공간을 화려한 원색이나 파스텔 톤의 패턴으로 강조함으로써 공간에 활력을 주었다.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의 추상

적인 기하패턴이 좀더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공간은 더욱 설명적이고 낭만적인 경향을 띤다. 이는 이 시대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 보여준 장인적인 토속성을 표현하는 낭만주의 성격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는 기하 형태를 강조하고 디테일의 처리에서도 간결 명료성을 추구하면서 색채로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 하였다. 색채의 사용은 다양성 보다는 제한된 색상을 명도와 채도에 변화를 주어 표현하게 되고 그 외의 디자인 요소들은 이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절제되어 표현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큐비즘적 디자인관이 새로운 디자인언어로 전개 되어감을 나타내었고, 디자인의 범위도 건축, 실내건축에서부터 더 넓게 확장되어 그래픽디자인, 전시기획디자인 등으로 이르게 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조성렬의 작품세계는 그 도입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국 실내건축계에서 특히 모더니즘이라는 범위에서는 산 증인의 역할을 하고 그의 발자취 하나하나에서 한국실내건축계의 모더니즘의 도입과 발전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한국실내건축계에 큐비즘을 도입시키고 모더니즘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큐빅디자인 운동(Cubic Design Movement)을 통해 도심의 삭막한 공간에 한 방울의 생명수 같은 편안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전반부 작품에서 그의 큐비즘 미학은 단순 기하학이 매스로 등장하고 수직과 수평선을 도입하고 투명유리를 통한 실내·외공간의 상호 관입을 꾀함으로써 단순성과 기능성을 표방한 구성미를 갖추었다. 그 후 점차적으로 단위격자의 반복에 의한 강조를 하려하였고, 공간의 개방성과 그에 따른 융통성을 추구한 것으로 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였다. 추상적인 기하패턴이 좀더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공간은 더욱 설명적이고 공간을 화려한 원색이나 파스텔 톤의 패턴으로 강조함으로써 공간에 활력을 주었다. 이러한 전반부의 그의 디자인은 큐비즘을 통하여 한국실내건축계에 모더니즘을 가져오게 한 원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의 그의 작품에서는 세계적인 조류에 부응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후속되는 추후 연구과제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한국 실내건축계의 발전상을 보는 것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혁, 한국현대건축에서 근대(성)의 개념과 성격, 건축역사연구회4, 1993
 남경숙, 한국 실내건축의 개혁과 성장, 도서출판 미건사, 2002
 박길룡, 한국현대건축의 유전자, 공간사, 2005

박홍, 현대건축과 실내 디자인, 기문당, 2000
 윤난지, 현대 미술의 풍경, 한길아트, 2005
 윤정근 외, 서양건축사(개정판), 기문당, 2005
 이춘설, 모더니즘 실내디자인, 형설, 2003
 조성렬, 저동 파인 힐, 삼성관, 뉴욕제화, K씨주택 외, 공간, 1972
 조성렬, 파인 힐 광명점, 코시드연감, 1992년
 조성렬, 실내건축/인테리어 디자인의 실제, 주 한림출판사, 1988
 큐빅디자인연구소, 조성렬 ART & ARCHITECTURE 1972/1992, 주 한림출판사, 1993
 큐빅디자인연구소, 조성렬 ART & ARCHITECTURE 1999, 산업도서출판공사, 1999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사연구1 - 분야와 시대, 한국건축사연구2 - 이론과 쟁점, 발언, 2005
 David Cottingham, 전경혁역, Cubism, 열화당, 2003
 강상훈, 일제 강점기 근대시설의 모더니즘 수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2.
 김진숙, 천득염, Cubism과 Le Corbusier 작품의 관련성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5
 김호연, 큐비즘에서의 투명성 개념에 의한 전시환경디자인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5호 통권 46호, 2004
 박길룡, 건축가와 작품, 한국건축역사학회, 창립10주년기념학술발표논문, 2001
 박홍, 韓國現代建築과 室內디자인의 相關의 表現特性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년
 윤도근, 김소희, 건축공간에서 '투명성'의 디자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5호, 2000
 황보 봉, 한스 셔로운의 주택설계에 나타난 근대 기능주의; 바이센호프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4권 4호 통권 516호, 2005
 조성렬, 실내건축의 미래, 코시드인테리어스, 1983년 9월
 조성렬, 소련건축의 실내, 코시드인테리어스, 1991년 10월
 조성렬, 한국인테리어 디자인의 40년, 코시드인테리어스, 1992년 4월
 조성렬, 국제화시대와 디자인 서비스, 코시드인테리어스, 1992년 11월
 코시드인테리어스 편집부, 큐빅디자인 연구소, 코시드인테리어스, 1995년 9월